

## 18세기말 프랑스의 모드 상인(Marchande de modes) 연구

최 유 진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Marchande de Modes in the late 18th Century France

Yoojin Choi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9. 25, revised date: 2015. 1. 15, accepted date: 2015. 4. 1)

#### ABSTRACT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that examines the fashion manufacturers and merchants of the late 18th century France. Fashion specialists, (known as) Marchande de modes, started to appear in literature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e profession wa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guild system in 1776. Rose Bertin was elected as the first representative. At the same time, there were two types of fashion specialists, tailleur and couturière. Tailleur had monopolized the production of the bodice and the skirt, which were the most important female dress parts. On the contrary, couturière only had the right to make petticoats, but they were not allowed to decorate it. In 1781, the couturière obtained the right to make and decorate the other parts of the dress, and this resulted in the two groups fighting over the rights to make dresses. And during this struggle, the Marchand de modes started to appear as a new occupation. Marchande de modes were privileged fashion merchants making or selling trimmings for dress and coiffure, and had authority to make capes and bonnets. Contemporary critics praised their talents for creating innovative and beautiful fashion styles, while some criticized them as women who just made luxury items. These records revealed how marchande de modes were viewed during that time.

Key words: 18th France(18세기 프랑스), couturière(쿠튀리에르), fashion history(복식사),  
marchande de modes(모드 상인), tailleur(타이외르)

## I. 서론

프랑스 오트쿠튀르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프레데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와 같이 고급 여성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프랑스로는 쿠튀리에(couturier)라고 한다. 주로 남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브리엘 샤넬과 같이 여성 디자이너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쿠튀리에르(couturière)가 있다. 이 용어는 고급 주문복을 만드는 재단사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성복의 스커트 부분을 주로 만들었던 여성 장인들을 일컫는 용어였다.

남성복, 여성복을 만드는 구분이 생기기 이전,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의 재단을 담당한 남성 재단사를 부르는 용어로는 타이외르(tailleur)가 있었다. 18세기 이전에는 타이외르가 남성복, 여성복 모두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지만, 18세기 후반에 쿠튀리에르가 여성복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타이외르는 여성복을 만들 수 있던 권한을 완전히 잃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는 18세기 후반, 여성복의 주요 부분을 만드는 스페셜리스트로는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가 대표적이며, 여기에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의 권한 다툼과 동업조합의 규정 완화로 새로운 스페셜리스트인 모드 상인(marchande de modes)이 생겨났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말 프랑스에 새롭게 생겨난 모드 상인이라는 업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은 당시의 타이외르나 쿠튀리에르와 같은 제조를 담당하고 있었던 패션 스페셜리스트와는 달리, 주로 판매에 종사했으며 의상의 마무리 단계에 장식할 수 있는 트리밍을 제작, 판매했으며 간단한 외투 종류나 모자류를 제작,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직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된 엄격한 길드 제도가 붕괴되고 이 후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타이외르의 권한이 쿠튀리에르에게 양도되면서 애매하게 남아있던 권한을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이 나눠 갖게 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유행한 드레스의 과도한 장식과 부풀려진 헤어 스타일의 유행과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드 상인 탄생의 배경으

로 18세기 후반의 패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와의 관계 속에서 모드 상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에 모드 상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복식사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패션에 종사한 전문가, 그 중에서도 모드 상인의 실체와 인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모드 상인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Huh(1995)의 '파리모드 200년'이라는 서적에서 모드 상인이었던 로즈 베르탱(Rose Berti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연구로는 Tsunoda(2010)가 18세기 상업사 연구의 한 측면으로 잡화 상인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부인들이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Tsuji(1985)의 연구가 남성 재단사(tailleur)와 여성 재단사(couturière)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Langlade(1913), Crowston(2002)의 연구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드 상인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 로즈 베르탱이라는 여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Langlade(1913)은 로즈 베르탱의 생애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Crowston(2002)은 당시의 신용거래와 로즈 베르탱의 사업의 실패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기록인 Mercier(1782-1783)의 'tableau de paris',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 Diderot & Alembert(1751-1772)의 'Encyclopédie'의 기록을 통해 모드 상인이 무엇인지, 주로 어떤 일을 했으며, 당시의 장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시대인으로부터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드 상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성복을 만드는 장인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 의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복식사 연구 성과에서 다루지 못했던 의상을 제작한 장인들을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로 그 의미가 있다.

## II. 18세기말 프랑스의 패션 경향과 모드 상인의 탄생

### 1. 18세기말의 프랑스 패션 경향

루이 16세 시대에는 의상의 장식 변화가 모드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1774년,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다.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는 연극이나 가면무도회를 좋아했으며 의상 또한 불합리성과 과장에 치우친 과장한 스타일을 선호했다. 한마디로 당시의 스타일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루이 16세 시대 패션의 대표적인 실루엣이라고 하면 헤어 스타일을 크게 부풀리고 스커트 부분도 크게 부풀린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 다채로운 장식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이 16세 시대는 매우 다양한 소매의 주름장식, 진주, 보석 등으로 장식된 파니에가 붙은 큰 드레스가 유행했다. 주요한 스타일은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브 아 라 폴로네즈, 로브 아 랑그레즈 등이 있었으며 어느 것이나 파니에로 스커트를 크게 부풀게 한 것이 특징이었다(Huh, 1995).

<Fig. 1>의 비제 르 브랭(Vigée le brun)이 그린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과 같이 의상의 형태는 매우 과장되었으며 스커트 부분에는 다양한 과장된 장식이 디자인되었다. 1760년대 이후부터 점점 머리모양이 크고 높아져서 거대한 구조물처럼 되었으며, 1780년대에는 사상 최대의 건축적인 머리형이 만들어졌다. 또한, 거대한 머리형을 만들기 위해 말털의 쿠션, 철사, 포마드, 밀가루 풀 등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머리와 가발에 의해 머리를 높이 빗어 올리고 여러 가지 머리 장식품을 꾸며 시사성이 있는 주제나 환상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Shin, 1981).

1770년에 간행된 최초의 패션잡지인 'galerie des modes'의 1778년 판에 수록된 <Fig. 2>에서는 과장된 헤어스타일과 다양한 장식으로 이뤄진 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에는 "팔레 루아얄의 산책로에 있는 베일로 장식된 자홍색 로브를 걸친 멧쟁이 아가씨"<sup>1)</sup>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gallica.bnf.fr, 2014,

1) "petite maîtresse en robe lilas tendre garnie de gaze

July 28-a).

또한 <Fig. 3>에서는 "젊은 숙녀가 헤어 스타일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녀는 페뉴아르와 매우 부드러운 옐로우 컬러의 거즈 페티코트를 입고 있다. 이발사는 살짝 파우더가 묻은 레드 컬러의 상의와 블랙 퀴로트,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다"<sup>2)</sup>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gallica.bnf.fr, 2014, July 28-b).

이와 같이 과장된 머리 위를 장식하는 것이 18세기 후반 패션의 대표적인 장식적 특징이었다. 로코코 시대의 확대형 두발양식은 바로크 시대의 풍타주 형이나 낮은 풍파두르 형이 사라지면서 화려하고 예술적이며, 환상적인 양식으로 발달했다. 이와 같은 로코코 시대의 두발 양식은 1760년대가 되면서 절정에 달했다(Yim & Kim, 2007).

1780년대 머리를 장식하는 요소로는 우아한 보닛형의 모자로 포장마차처럼 골조가 있고 섬세한 마직물이나 비단형질을 주름 잡아 만든 칼래시(calash)가 있었다. 이 모자는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바람으로부터 공들여 빗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거대한 헤어 스타일을 장식하는 대형의 보닛들은 공단, 태피터, 벨벳, 머슬린, 밀집 등의 재료로 만들었으며, 모자의 챙은 넓었고 챙의 넓이와 휘어진 각도, 크라운의 깊이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으며 조하나 깃털 등으로 장식했다(Shin, 1981). 보통 머리 장식으로는 화환이나 깃털로 아름답게 꾸민, 크고 부드러운 천으로 된 푸프(pouf)가 있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루이 16세 시대의 패션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마무리 장식을 담당할 스페셜리스트가 모드 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Bae(2012)의 연구는 18세기 후기의 패션 경향을, 패션 리더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자료로 1기(1770-1774), 2기(1775-1779), 3기(1780-1789), 4

a la promenade au palais royal"이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gallica.bnf.fr(Ed.)(2014, July 28-b).

2) "Jeune de dame fe fefant coëffer à neuf, elle eft en peignoir et fa juppe de gaze d'un jaune très tendre. Le coëffeur en vefte rouge un peu poudrée, culotte noire et bas de foie gris"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gallica.bnf.fr(Ed.)(2014, July 28-c).



〈Fig. 1〉 La Reine Marie Antoinette (Benoit, n.d.)



〈Fig. 2〉 Petite Maitresse en Robe Lilas Tendre Garnie de Gaze a la Promenade au Palais Royal (gallica.bnf.fr, 2014, July 28-a)



〈Fig. 3〉 Jeune de Dame fe Fefant Coëffer à Neuf, Elle Eft en Peignoir et fa Juppe de Gaze d'un Jaune très Tendre, Le Coëffeur en Vefte Rouge un peu Poudrée, Culotte Noire et bas de Foie Gri(gallica.bnf.fr, 2014, July 28-b)

기(1789-1793)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했다. 2기의 복식은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이는 의상이 많았으나, 3기의 복식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의상이 단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단순화된 의상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모자 장식은 오히려 커지게 되었다. 마리 앙투와네트의 모자 장식의 경우도 의상과 반비례하여 크기가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동시대인들이 마리 앙투와네트의 머리 장식을 비난한 사실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기에는 신고전주의의 의상 스타일인 간소화된 하이웨이스트의 슈미즈 스타일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모드 상인이 널리 활동한 시기는 의상의 장식이 단순해 짐과 반비례하여 헤어 장식이 거대해지는 3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모드 상인(Marchande de Modes)의 등장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은 당시의 패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18세기에는 파니에로 부풀린 스커트의 디자인이 지속되면서 그 위를 장식하는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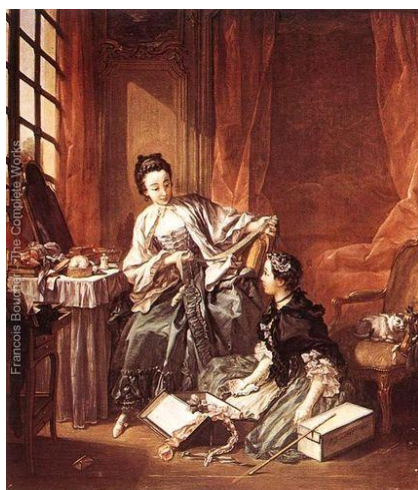
리밍으로 화려함을 더 하는 스타일이 지속되었다. 드레스 스타일이 유사하게 지속되면서 트리밍의 중요성은 그 만큼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갔다. 과장되고 부풀어진 실루엣을 마무리하는 장식 스페셜리스트인 모드 상인은 의상 뿐만 아니라 헤어 스타일의 장식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복의 중요한 바디스와 스커트 부분을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은 남성 재단사, 타이외르와 여성 재단사, 쿠튀리에르였다. 〈Fig. 4〉는 'galerie des modes'에 수록된 타이외르의 모습이다. 여성복 로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디스를 가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랜 동안 여성복의 바디스 부분 재단을 둘러싸고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가 다투어 왔는데, 그림이 그려진 1778년에서 1785년 사이에는 아직까지 타이외르가 여성복의 바디스를 만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기말에는 타이외르, 쿠튀리에르 외에 장식을 담당하는 장인인 모드 상인이 추가되어 여성복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업이 되었다.

모드 상인의 조합은 정식으로서는 모드를 만들고 파



〈Fig. 4〉 Tailleur Costumier Essayant un Cor a la Mode (gallica.bnf.fr, 2014, July 28-c).



〈Fig. 5〉 The Milliner(morning)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6, p. 225)



〈Fig. 6〉 Marchande de Modes Portant la Marchandise en Ville (gallica.bnf.fr, 2014, July 28-d)

는 사람, 깃털 장식 직인 및 판매상(faiseuses et marchande de modes, plumassières)이라는 이름의 조합명을 가지고 있었다(Tsunoda, 2010). 이 조합에는 남성 직인들도 소속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형(marchande)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길드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776년 10월 11일에는 모드 상인 중에서 마리 잔느 베르탱(Marie Jeanne Bertin)이 최초로 장인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자격 취득 이전에 왕실을 출입하고 있었던 보라르 등의 모드 상인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Tsuji, 1985). Tsunoda(2010)의 연구에 의하면 모드 상인은 1750년대 경부터 존재가 확인되며, 1760년대에 파리 시민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사전 집필자들은 모드 상인의 시작을 잡화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드 상인의 일이 판매 뿐만 아니라, 재봉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쿠튀리에르 장인 밑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모드 상인이 되는 예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수아 부세(François Boucher)의 작품 중에는 한 여성이 장식품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스톡홀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Fig. 5〉는 모드 상인(la marchande de modes)이라는 제목으로 흔히 불리는 데, 이 그림에는 모드 상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여성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모드 상인이라는 제목으로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세의 작품에서와 같이 패션 스타일을 완성하는 장식 트리밍을 판매하기 위해 혹은 배달하기 위해 구매자의 집을 방문하러 다녔음을 보여준다.

또한 〈Fig. 6〉의 'galerie des modes'에 수록된 그림에서도 모드 상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는 도시에서 상품을 나르고 있는 모드 상인이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어서 그들이 만든 장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러 다니거나 배달했던 것을 보여준다(gallica.bnf.fr, 2014, July 28-d).

모드 상인은 이후 모디스트(modiste)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프랑스 사전에서 모디스트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남녀 모드 상인(1777년), 19세기 초기에는 여성의 머리장식(모자, 신부의 화관, 베레모 등)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상인, 현재에는 여성의 모자를 만드는 여성노동자라고 설명되어 있다(Robert, 1974). 이 사전의 설명과 같이 18세기말에는 모디스트가 모드 상인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모드 상인이라는 용어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모디스트라는 용어가 더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모디스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Choi(2007)의 지적과 같이 이는 드레스를 장식하던 모드 상인의 역할이 모자를 꾸미는 모디스트의 직업으로 축소됨을 나타낸다.

### Ⅲ. 모드 상인의 역할과 인식

여기에서는 모드 상인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고찰하기 위해 당시에 모드 상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한 그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었는가에 관해 당시의 기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1. 타이외르와 쿠티리에르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1695년 3월 30일의 루이 14세의 칙령과 테일러링 기술을 정리한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의 기록, 1781년 2월 19일의 개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이외르와 쿠티리에르, 모드 상인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모드 상인의 권한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Table 1>에서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루이 14세는 1695년 3월 30일에 쿠티리에르가 동업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락했다. 칙령에 의하면, 여성의 의상을 동성인 여성이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여성의 수치심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예의 작법에도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Perrot, 2007). 이 조례는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의하면 장인은 로브의 상반신인 바디스(corps de robe)와 로브의 스커트 부분(bas de robe)을 제외한 모든 부인복(마제품은 제외)을 재단하여 그것을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다. 남성의 의복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만 8세 이하의 남자 아동복의 재단은 2조에 의해 예외로 인정한다. 제 11조에서는 고래뼈를 사용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천을 덧대는 일이나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한 바느질은 인정하지만 다른 실을 첨가하는 것이나 꽃이나 형을 다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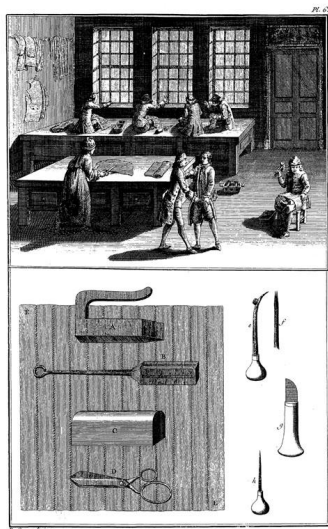
변형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 2회, 심사관의 방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Lespinasse, 1886-87).

이 칙령의 내용과 같이 쿠티리에르의 조합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여성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브의 바디스와 스커트 부분은 타이외르의 권한이었으며 완전히 여성복의 모든 부분을 만들 수 있기까지는 1781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루이 14세의 칙령이 발표된 약 70년 후인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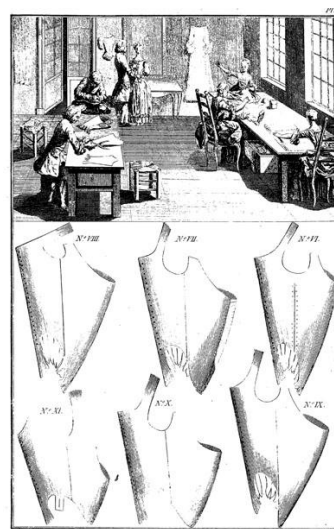
“궁정예복(grand habit de cour)은 고래뼈를 넣어 부풀린 로브 상반신의 바디스(corps de robe)와 로브의 스커트 부분(bas de robe)으로 구성된다. 몸통은 천으로 덮혀 있으며 로브의 스커트 부분과 페티코트(jupon)는 같은 천이 사용된다. 타이외르는 로브 상반신의 바디스와 로브의 스커트 부분을 재봉하며 쿠티리에르는 페티코트를 만들며 모드 상인은 장식을 담당한다”(Garsault, 1769, pp. 54-56).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은 타이외르의 분야가 남성복재단(tailleur d'habit d'homme), 가죽 반바지 재단(les culottes de peau), 그리고 부인복과 아동복의 바디스(le tailleur de corps de femme et enfants)의 세 가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적은 프랑스에서 타이외르의 기술을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잡은 최초의 서적이다. 18세기말까지 타이외르는 남, 여, 아동에 상관없이 모든 의복의 재단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재단에 필요한 페브릭, 가죽, 혹은 주문품 이외의 재단품을 상점에 전시해 놓고 팔 수 있는 등, 재단 직인으로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타이외르는 17세기 이후 부인복으로부터 서서히 손을 떼게 되고 마지막까지 고수하고 있던 여성복 바디스 부분을 1781년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어 여성복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의 삽화에서는 여성복과 남성복 모두를 제작하고 있는 타이외르의 작업실 공간이 묘사되어 있다. <Fig. 7>은 남성복을 만드는 타이외르의 모습이며 <Fig. 8>은 여성복을 만



<Fig. 7> Tailleur  
(Garsault, 1769, pl. 6)



<Fig. 8> Tailleur  
(Garsault, 1769, pl. 13)

드는 타이외르의 모습이다. <Fig. 8>에는 여성의 치수를 재고 있는 재단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작업장에는 남성 직인뿐만 아니라 여성 직인도 함께 그려져 있다. 남성복은 남, 녀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여성복을 만드는 남성 타이외르와 귀족의 여성 사이의 관계가 프랑스의 풍속화에 풍자의 대상으로 종종 다루어지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여성복을 남성 재단사 만드는 것에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76년 1월 재무장관인 체르코가 길드폐지를 포함한 개혁의 6개 왕령을 제의했으며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후 바로 8월에 왕이 다시 왕령을 철회시켰다. 100개가 넘는 폐선 관계 조합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그대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큰 폭의 재편성이 실시되어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재료가 중복되는 조합은 통합되었다. 최종적으로 44개로 줄어들었으며 모드 상인을 포함한 2개의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Tsunoda, 2010).

약 10년 후인 1781년 2월 19일에 19개 조항이 규정된 개정령이 발표되었으며 쿠튀리에르의 권리는

제한이 없어 졌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개선되었다. 1조에 의하면 부인과 아동복의 전부와 새로운 의복의 설계, 재단, 봉제, 그리고 부속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의복의 수리나 재봉 수정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에는 바디스, 코르셋, 파니에, 바레느, 남성의 실내복, 남녀의 가장무도회용 도미노 재봉도 허락되었으며 모드 상인과 동등하게 로브나 도미노에 장식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식은 로브와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필요한 견본 원단을 메종에 둘 수 있게 되었다(Lespinasse, 1886-87).

지금까지 옷의 주요부분을 만드는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695년에 쿠튀리에르의 조합은 허용되었으나 여성복에서 가장 중요한 로브의 바디스 부분을 만들 권리는 타이외르에게만 있었으며 약 100년이 지난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에서도 여성복의 바디스 부분은 타이외르의 권한이었다. 1781년에 처음으로 쿠튀리에르는 여성복 전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Table 1> Female Dress Maker's Authority

	1695	1769	1781
tailleur	· bodice and skirt part of the female dress	· bodice and skirt part of the female dress	· bodice and skirt part of the female dress
couturière	· couturière guild's permission · all female clothing making and selling (linen products, and female dress' bodice and skirt part of the robe are excluded)	· petticoat	· all of the female and child dress · dress repairing and needle work changing
marchande de modes		· trimming	· trimming

## 2. 모드 상인의 영역

Diderot & Alembert(1751-1778)의 백과전서는 모드 상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녀들의 이름은 일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복식에 관한 것만을 팔고 있기 때문에 모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인이 개업한 것은 조금 전의 일이다. 그녀들은 잡화상(mercier)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복식만을 팔게 되면서부터 모드 상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p. 18).

또한 본 서적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수예 등의 재료 판매를 그만두고 복식품 판매만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잡화상이었던 남편 덕분에 머리, 의외, 속옷을 위한 모든 장식품 뿐만 아니라, 주로 레이스, 툴, 천 조각, 모피 등의 상품을 팔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은 재봉사가 만든 의복을 장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몇 종류의 특별한 걸옷, 즉 케이프(matelet), 스카프(mantille), 털코트(pelisse)를 만들고 있다(pp. 18-19).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드 상인이 의상의 장식품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케이프, 스카프, 털코트와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에는 모드 상인이 여성 장식품을 만드는 여성 직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몇 년전부터 몇 명의 잡화상의 아내가 모드 상인

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잡화상으로서 리본, 거즈, 레이스 등 여성복을 꾸미기 위한 장식품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제작자가 되어, 상품을 조합하거나 조정한다. 게다가 그녀들은 여성이 보통 옷 위에 겹쳐입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의복을 만든다. 여성복 봉제장인의 기술에 이어 그녀들을 거론하는 것은 그녀들이 그러한 의외용 의복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Garsault, 1769, p. 2).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이 판매 뿐만 아니라 의복을 제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봉제 장인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문장이다.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이 쓰여진 13년 후인 Mercier(1782)는 'tableau de paris'에서 모드 상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서적은 1781년에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1788년에는 최종의 12권으로 수정, 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782년에 간행된 모드 상인에 관한 설명과, 1783년에 수정된 내용을 함께 고찰했다. Mercier(1782)는 모드 상인에 대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심혈을 기울인 모양을 한 부인 모자 아래에서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생겨난다. 이 분야의 발명 덕분에 헤어 스타일의 고안자의 이름은 유명해진다” 라고 적고 있다(p. 215). 이러한 지적과 같이 모드 상인의 일이 헤어의 장식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머리 스타일만을 만드는 장인은 아니었다. 머리를 담당한 직업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모드 상인은 머리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장식품을 고안하는 장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드 상인이 취급했던 물품의 다양함은 당시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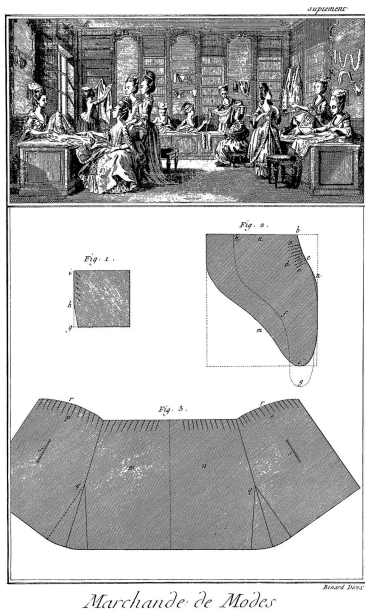


리 앙트와네트의 어용 상인이었던 모드 상인 에로프 부인(Mme Eloffe)이 1787년부터 1790년에 걸쳐 당시에 거래했던 물품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왕비를 시작으로 주변의 귀족들의 납품 상세와 가격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기록을 추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장식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네(bonnet), 터번 등의 봉재, 로브나 페티코트를 장식하는 레이스나 거즈, 리본의 장식, 소매 장식, 가슴의 피슈, 간단한 케이프, 그리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 대량의 리본 등 각종 장식이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Reiset, 1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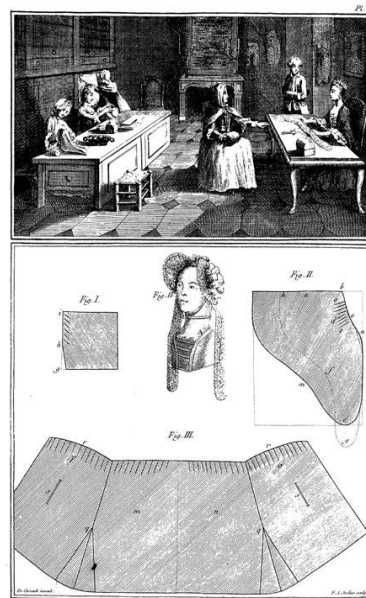
당시의 모드 상인을 그린 시각적인 자료는 많지 않지만 <Fig. 9>는 그 중의 한 장으로 Diderot & Alembert(1751-1778)의 백과전서에 게재된 모드상인이 일하는 모습이다. 그림에는 테이블에 쌓여 있는 시폰이나 레이스를 손님에게 보여주는 모드 상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디드로는 초판의 경우는 설명만 수록하고 도판을 삽입하지 않은 반면에 20년

후에 다시 간행한 증보판에는 도판을 실고 있다. 또한 다른 점은, 초판에는 모드 상인의 일이 남녀가 함께 종사하는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증보판에서는 여성형의 명사(marchande)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는 모드 상인이라는 일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에는 패션 상품을 보여주는 여성과 그 것을 건네받아 살펴보는 소비자로 보이는 여성이 묘사되어 있다. 삽화 아래에는 의상 제작용 패턴이 그려져 있다. 본 서적의 도판은 대부분 공정에 필요한 도구가 그려져 있는데 다른 직인들과는 달리 모드 상인의 경우는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작업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하는 일이 도구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일이기 보다는 판매를 하거나 제품에 장식을 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에 필요한 큰 기계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Fig. 1-3>은 의상 제작용 패턴이 그려져 있다. <Fig. 1>은 부인용 케이프(mantelet)의 후드 패턴이며, <Fig. 2>는 재단



<Fig. 9> Marchande de Modes (Diderot et Alembert, 1751-1780, "marchande de modes")



<Fig. 10> Marchande de Modes (Garsault, 1769, pl. 16)

된 케이프의 모습이며, 점선 부분은 스카프(mantille) 부분이다. 그리고 <Fig. 3>은 털 내피가 달린 코트(pelisse) 부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서적에서는 완성품의 모습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 완성된 모습을 알 수 없었으나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Garsault(1769)의 'art du tailleur'에 실린 모드 상인의 삽화는 Diderot & Alembert(1751-1780)의 'Encyclopédie'의 삽화와 흡사한 양상으로 그려져 있다. 두 서적 모두 같은 패턴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네로 보이는 것을 쓰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드 상인의 주요한 역할이 장식을 만드는 일이지만 케이프와 코트와 같은 복식 아이템을 제조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삽화들이다.

모드 상인은 타이외르나 쿠튀리에르와 비교해, 길드에 거의 구속받지 않은, 달리 말하자면 특권상인이었다. 일의 내용도 다양하여 헤어 스타일의 고안자이기도 했으며 로브를 장식하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었고 몸에 피트하게 재단하여 만들 필요가 없는 모자나 망토와 같은 상품의 기성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다. 모드 상인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776

년에 정식 조합으로 인정받았으며 당시 사회에 있어 어느 정도 특권적 지위에 있었으며 당시의 드레스의 유행을 주도하는 장식품을 고안해내는 창의적인 직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모드 상인에 대한 인식

#### 1) 재능 찬사

당대의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그녀들의 재능에 관한 것이었다. Garsault(1769)는 그녀들의 직업은 재능에 의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모드 상인을 풍자하고 조소하는 글을 쓴 Mercier(1783)도 모드 상인의 재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당시의 마리 앙투와네트의 모드 상인이 된 로즈 베르탱에 관해서는 긴 페이지를 할애해 칭찬의 글들을 남기고 있다.

“유행에 대해 돌연 반기를 들 정도로 용맹한 여성은 없다. 한 명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이 유행의 제국에서 왕지팡이를 손 안에 넣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능숙하고 잘 준비된 왕위 찬탈에 의한 것이다. 이 전, 두 명의 모드 상인 사이에서 유명 시인 사이에서나 일어 날 것과 같은 싸움이 있었다”(Mercier, 1783, pp. 282-283).

<Table 2> Authority of the Marchande de Modes

author	year	Authority	other description
Diderot & Alembert	1751-1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ng hair style</li> <li>· trimming for hair, coat, inner-wear</li> <li>· lace and tulle making, fur trimming</li> <li>· cape, scarf, fur coat mak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st architect and decorator creating accessory and pleats trimmings</li> <li>· origin from mercier</li> <li>· marchand→ marchande</li> <li>· publishing cape's hood making patterns, fur coat patterns</li> </ul>
Garsault	17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ling ribbon, gaze, lace decorating female dress</li> <li>· making and mixing of the products</li> <li>· female coat mak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male fashion maker making female dress's trimming</li> <li>· mercier</li> <li>· publishing hood and coat's making patterns.</li> </ul>
Mercier	1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ng hair style</li> </ul>	
Mme Eloffe	1787-1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le work of bonnet and turban</li> <li>· lace, gaze, ribbon, sleeve decoration, fichu, simple cape, bunch of ribbons for various uses</li> </ul>	

이 내용은 베르탱과 다른 장인과의 경쟁에 관한 것이며 결국에는 베르탱이 승리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당시에 유명했던 알렉산드르와 보라르의 밑에서 일을 배웠던 여성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Gesvres의 모드 상인이 모든 앞선 이들의 미학에 도전했으며 오랜 상점들의 기법을 답습하지 않고 탁월한 눈을 활용해, 경쟁 상대의 기술 모두를 뒤집었다”(Mercier, 1783, p. 283).

패션 산업에 종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기술자 계급에 속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사람은 거의 없지만 후세에 까지 이름을 알린 패션 메이커 중의 한 사람이 모드 상인, 로즈 베르탱이다. 당대의 기록은 베르탱에 대해 허영심 많으며 질투심 많지만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재능이 넘쳐 유럽 전체에 그 이름을 알린 디자이너라고 평가하고 있다.

## 2) 사치와 도덕심

모드 상인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일의 주로 남성들의 도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즉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이 잡화상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과 그녀들이 일하는 마가장 드 누보테(magasin de nouveaute)라는 상점의 오픈된 구조와 사치품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인한다.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이 유행했을 당시 의상 판매점은 18세기 말에 생겨나기 시작한 마가장 드 누보테라는 형태였다. 마가장 드 누보테는 이전의 상점과는 달리 유리로 외장을 마무리했으며 조명도 밝아져 외부에서도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오픈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당시 풍속 연구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유행품을 만들고 파는 여성의 일은 사치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모드 상인은 사치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녀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마리 앙투와네트의 어용상인이었던 로즈 베르탱의 이름은 왕실의 사치를 표현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베르탱은 재능을 인정받아 왕실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였지만 일반적으로 베르탱과 같은 모드 상인은 비실용적인 사치품을 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Desessarts(1786-90)은 모드 상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여성의 사치에 의해 생겨난 다양한 무역은 여성의 멋내기엔 지지 받으며, 그리고 경박한 취미가 감정을 통제하는 한 번성한다. 도덕관의 붕괴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는 관찰자의 눈에는 모드 상인의 셀 수도 없는 수의 메종, 메종의 장식하는 기술, 통행인의 눈에 노출되는 특이한 장식품, 이들 모두가 위험한 요소이다. 실제 모드 상인의 천재적인 생산품을 매일 보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 할 힘을 가진 젊은 여성이 있을 수 있을까. 실제, 그러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Desessarts, 1786-90, pp. 625-626).

여기에서는 모드 상인이 판매하는 장식품은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며, 도덕관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비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도덕관의 붕괴는 사치품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상품화시키는 의미를 암시한다. 한편, 통행인의 눈을 끄는 모드점의 상품은 남성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Mercier(1782)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모든 기혼자들은 모드 상인의 여성을 두려워해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다. 미혼의 남성은 저 모자나 복식품의 깃털 장식 등을 여성들이 동경하는 것을 본 후 신중히 생각하고 고려했 후 독신에 머무를 것을 생각한다”(Mercier, 1782, p. 214).

당시의 풍속 기록자들은 모드 상인이 다루었던 장식품들은 때로는 여성을 유혹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남성에게는 좌절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Desessarts와 Mercier는 풍속을 기록하는 작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 활약했던 모드 상인에 대해 이렇게까지 주목한 이유는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었다는 점과 그들이 만들어 낸 장식품들이 당시의 유행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생겨난 패션 스페셜리스트였던 모드 상인을 고찰했다. 모드 상인의 역할이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의 패션 스페셜리스트였던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와의 관계 속에서 모드 상인의 역할이나 위치를 명확히 했으며 모드 상인에 대한 당시의 인식도 함께 고찰했다. 패션 스페셜리스트,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은 18세기 중반이후부터 서서히 문헌에 등장했으며 1776년에 최초로 동업조합이 인정되었고, 첫 번째 회장으로 마리 앙투와네트의 여용 상인이었던 로즈 베르탱이 선출되었다.

모드 상인이 활약했던 당시, 여성복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스페셜리스트로는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가 있었다. 타이외르는 오랜 세월 동안 여성복의 주요한 로브의 바디스와 페티코트 제작을 독점했다. 1695년에 쿠튀리에르가 동업조합 설립을 인정받았으나 여성복의 주요 부분은 중에서 페티코트만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1781년의 개정령으로 타이외르가 여성복에서 전면적으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으며 쿠튀리에르는 여성복의 주요한 부분까지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렇듯 타이외르와 쿠튀리에르는 100여년 동안이나 엄격하게 권한을 다투어 왔으며, 이 권한 다툼의 틈바구니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모드 상인이라는 직업이었다. 모드 상인은 쿠튀리에르가 담당할 수 없었던 헤어 스타일과 드레스의 장식을 담당했다. 제조와 판매가 엄격히 구분되었던 당시의 패션 산업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판매와 제조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으며, 보네와 망토와 같은 간단한 의의를 제작해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들 직업의 원류를 판매를 담당했던 잡화상으로 보는 견해와도 관련된다.

한편, 모드 상인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들어 내는 예술가와 같은 존재로 높이 평가되는 일면에 사치품을 만드는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점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주로 풍속연구가들의 증언으로,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기 보다는 흥미를 끌기 위한 내용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들이 모드 상인을 앞 다투어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들 직업이 얼마나 주목을 받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양 패션의 역사에 관련한 연구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초적인 학술적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18세기 후반의 패션 전문직인 모드 상인의 모습을 규명하면서 당시의 패션 상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독특한 직업이었던 모드 상인에 관해서도 최초로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식사 뿐만 아니라 역사학, 풍속학, 미술 관련 분야 등에서도 기초적인 학술적 성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

- Bae, S. J. (2012). The transition of late 18th century women's costume and enlightenment, with reviewing the portraiture of Marie Antoinette: Focused on 1770-179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1), 120-136.
- Benoit, J. (n.d.) Marie-Antoinette, the unloved [Marie-Antoinette, la mal-aimée]. Retrieved from <http://www.histoire-image.org/pleincadre/index.php?i=578>
- Choi, Y. J. (2007). *Representation of the modiste: commodity culture and female repres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chanomizu University, Tokyo, Japan.
- Crowston, C. H. (2002). The queen and her minister of fashion: Gender, credit and politics in pre-revolutionary France. *Gender & History*, 14(1), 92-116.
- Desessarts, N. L. (1786-90). *Dictionnaire Universel de Police*. t.6, Paris, France: Mustard.
- Diderot, D. & Alembert, J. (1751-1772). Marchande de modes. In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 métiers*. t. 22, Paris, France.
- Diderot, D. & Alembert, J. (1751-1780). *L'Encyclopédie: Arts de l'habillement*. Paris, France: Inter-livres.
- gallica.bnf.fr(Ed.) (2014, July 28-a). Gallery of french fashions and costumes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Retrieved from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56746t/f153.image>
- gallica.bnf.fr(Ed.) (2014, July 28-b). Gallery of french fashions and costumes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Retrieved from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56746t/f189.image>
- gallica.bnf.fr(Ed.) (2014, July 28-c). Gallery of french fashions and costumes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Retrieved from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56746t/f189.image>

- /12148/bpt6k1056746t/f225.image  
gallica.bnf.fr(Ed.) (2014, July 28-d). Gallery of french fashions and costumes [Galerie des modes et costumes français]. Retrieved from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1056746t/f137.image>
- Garsault, F. A. (1769). Art du tailleur. In *descriptions des arts et métiers*. Paris, France: L. F. delatour.
- Huh, J. (1995). *Paris mode 200*. Seoul, Republic of Korea: Yurimmunwhasa.
- Langlade, É. (1913). *La marchande de modes de Marie Antoinette: Rose Bertin*. Paris, France: A. Michel.
- Lespinasse, R. & Bonnardot, F. (1886-87). *Les Métiers et Corporations de la Ville de Paris*. Paris, France: Imprimerie National.
- Mercier, L. S. (1782). Marchande de modes. In *Tableau de paris* [eBook](t.2). Retrieved from <http://babel.hathitrust.org/cgi/pt?id=gri.ark:/13960/t3cz5zm5n:view=1up;seq=222>
- Mercier, L. S. (1783). Marchandes de modes. In *Tableau de Paris, nouvelle édition corrigée & augmentée* [eBook](t. 6). Retrieved from <https://books.google.co.kr/books?id=3kh2GIAZqugC&pg=PA282&lpg=PA282&dq=Marchandes+de+modes,+tableau+de+paris&source=bl&ots=JR8Sr4wU04&sig=Zp6Rsi4DSXiYBXZFkrx-Y6V1UUY&hl=ko&sa=X&ei=qtMzVb2LNie4mwWljiBQ&ved=0CDQQ6AEwBg#v=onepage&q=Marchandes%20de%20modes%2C%20tableau%20de%20paris&f=false>
-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6). *François Boucher*. New York, U.S.: Metropolitan Museum of Art.
- Robert, P. (1974). Modiste. In *Dictionnaire Universel des Noms Propres*. Paris, France: Le robert.
- Perrot, P. (2007). *Bourgeois society and fashion* (J. H.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Hyunshil munwha yeonku(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Reiset, G. H. (1885). *Modes et usages au temps de Marie-Antoinette*. Paris, France: Firmin-Didot.
- Shin, S. O. (1981). *Western fashion history*. Seoul, Republic of Korea: Suhaksa.
- Tsunoda, N. (2010). *Fashion retail and fashion merchant from late 18th to early 19th Fr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chanomizu University, Tokyo, Japan.
- Tsuji, M. (1985). From Tailor to Dressmaker 2. *Bunka women university kiyo*, 16, 161-170.
- Yim, R. & Kim, E. K. (2007).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nlargement hair type: Compare the enlarged hair type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at in Rococ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4), 143-158.